헬기타고 보는 길

(막8:1~10)

1.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2.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3.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4.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5.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6.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7.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8.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9. 사람은 약 사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10.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헬기타고 보는 길>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헬기타고 보는 길! 헬기를 타보신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비행기 타는 것보다 더 기회가 없지요.
저는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절반의 전반부는 비행대에 있었습니다.
육군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육군이 사용하는 헬리콥터 부대에서 정비를 맡아서 근무를 했습니

다.
정비를 하고 나면 그 정비사 중에 돌아가면서 헬기의 파일럿이 시험비행(test fly)을 할 때, 옆에 앉아서 아니면 뒤에 앉아서 같이 비행기를 타고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있던 게 미2사단 이었으니까, 동두천의 하늘을 날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버스타고 걸어다닐 때는 몰라요.
그런데 동두천이 위에서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산이 많은데다가 동두천만 해도 서울보다는 북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산과 산 사이를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들의 모습이 정말 아홉 번 꺾어져 휘어지는 양의 창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구절양장이라고 하는 말처럼 그렇게 굽이굽이 돌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굽이굽이 돌아도 끊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비행대 근무가 끝나고 나머지 후반부를 부관중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부관중대 트레이닝 룸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훈련 작전처라 할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 계획을 짜서 200~300명 되는 부관중대 중대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데, march 하는 게 있어요, march.
행군을 할 때 하루 종~일 행군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플랜을 짜는 거예요, 언제 한번 행군을 하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행군할 때 참여해서 하루 종일 걷다 보면 그 길들이 다~ 끊어져 있어요.
동두천 도로 그 구석구석 들어가서 이제 가능한 한 트래픽이 좀 적은 그런 길을 찾아서 걷다 보면 길들이 산모퉁이에서 다 끊어져 있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보면 끊어진 길이 하나도 없는데, 휘어져는 있지만 굽어져는 있지만 끊어진 길이 없는데, 걷다 보면 한 사람이 10미터 간격으로 200~300명이 쭉~ 늘어서면 그 행렬이 몇 킬로가 돼요.
한 2킬로 3킬로 이렇게 되는데, 그 사이를 쭉 띄엄띄엄 행군을 하고 있는 열에 맞춰서 걷다 보면, 저~ 멀리 보이는 길들이 다 끊어져 있고, 군인들의 그 행렬자체도 끊어져서 앞대가리는 안 보입니다, 뒤에 가다 보면…
또 앞에 가서 뒤를 돌아다보면 뒤가 안 보여요.

이 사실을 오늘 좀 비유적으로 염두에 두고 칠병이어를 한번 이해해 봅니다.

칠병이어! 이 기적사건을 통해서 말씀 하시려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앞서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이 특별히 다른 메시지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비슷하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오병이어에서 던져주는 메시지와 칠병이어에서 던져주는 메시지는 정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Opposite direction.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오른쪽을 향해 가고 있는 거라 그러면, 칠병이어의 메시지는 왼쪽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칠병이어도 마찬가지지만, 표적으로 이해를 하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에서 그 기적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는 영적인 메시지는, 인간의 필요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채워야만 되는 비어있는 마음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족함을 얻으려고, 6장 42절에 '다 배불리 먹고…'라고 하는 그 말처럼, 배 부르려고, 마음에 채움이 가득함으로 기쁨이 생기니까.
기쁨이라는 건 언제나 비어있는 마음이 채워질 때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의 동산인 에덴동산이 채움의 동산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과일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곳이 기쁨의 동산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채움, 그래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 땀을 뻘뻘 흘리며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배부를 수 있는 채움의 동산, 나의 마음을 진정으로 채울 수 있는 채움의 동산은, 시크릿가든은 어디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삶의 현장에 있는 게 아니

라, ‘삶의 현장에 대해서 마음이 죽은 광야 같은 삶이 죽어버린 현장, 광야 같은 곳에 나의 채움의 동산이, 나의 에덴의 동산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빠져 나왔어요, 내 마음이.
‘삶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서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대해 가까이 와 있는 천국으로 마음을 채워라, 삶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채울 수 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방향성은 삶에 있던 마음이 삶을 떠나서, 삶에 대해서 죽으면서 내 마음 가까이 와 있는 천국으로 옮겨오는 방향으로 이 오병이어의 메시지는 움직여 갑니다.

근데 칠병이어는 그 반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삶에 대해서 죽어버려서 삶의 현장을 떠나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가까이 와 있는 천국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서 만족하게 된 사람, 바로 앞에서 우리 뭐라 그랬어요? 통화권이탈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떠날 때에 삶에 대해서 죽을 때에 그래서 마음이 천국에 가까이 온 천국에 머물 때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하나님과의 통로가 뚫어지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지고 천국이 채워지고 만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몸은 삶의 현장에 남아있습니다.
이럴 때, 천국에 머물면서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 내 마음, 이 천국으로부터 하나님의 생각이 내 몸이 살아있는 삶의 현장 쪽으로 펼쳐지는 방향, 이것이 바로 칠병이어의 메시지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삶의 현장에 묶여있던 내 마음이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오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배부른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 칠병이어는 그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하게 된 그런 사람이 행복해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이 남겨두고 온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마음의 만족을 삶의 현장에서 찾지 않고 삶의 현장에 대해 죽음으로, 삶을 떠나서 내 마음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내 육체보다도 가까이 와 있는, 내 얼굴 생김새보다도 가까이 와 있는, 내 유전자보다도 가까이 와 있는 천국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천국으로 만족하려면 반드시 마음이 삶을 떠나야 되요.
그러면 삶은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따위 짓을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사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저희 가족이 참으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니까, 독일로 가서 살았습니다, 한 6년.
그리고 한국에 나와서 영락교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에 들어갔다가 잠깐 한국으로 나와서는 다시 캐나다로 들어가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캐나다에서 있다가 한국 서울로 나왔습니다.
서울에 나와 있다가 강릉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학교에서 우리아이에게 친구들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말하니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왜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어?
무슨 생각으로 많이 돌아다녔어?
우리 아이가 답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미국으로 갔는지, 왜~ 자기가 캐나다로 갔는지, 왜~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나왔는지, 왜~ 한국 서울에서 강릉으로 왔는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옮겨 다닌 이유는, 아빠하고 붙어 있으려니까…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에요.
친정에서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돌아다녔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남편 되는 사람하고 붙어 있으려니까 그냥 그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돌아다닌 게 아닙니다.
남편이 생각이 있다면 있는 거지요? 남편 생각 때문에 독일 갔다가, 남편 생각 때문에 미국 갔다가, 남편 생각 때문에 캐나다가 갔다가, 남편 생각 때문에 한국 나갔다가…

남편 생각 때문에 돌아다닌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돌아다닌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저도 제 생각 때문에, 제 딴에는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 계획해 본적이 없습니다.
독일 갈 때도 계획해서 간 게 아닙니다. 미국 갈 때도 계획해서 간 게 아닙니다.
다~ 뜬금없는 계기로 가게 된 겁니다.
캐나다, 꿈에 생각도 안 했습니다.
미국 들어갈 때 캐나다로 갈 거 생각도 안 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칠병이어가 어떻게 해 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칠병이어가 보여주고 있어요.
오병이어와 아주 두드러지게 다른 점 하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날이 저무니까 동네나 촌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먹게 합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칠병이어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먹을 것을 주자'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삼일동안 나와 함께 있으나 이제 먹을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삼일동안 금식을 했다는 얘길까요? 아니에요.
어느 학자도 그렇게 보는 학자는 없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이.
금식을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웬 금식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금식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삼일동안 먹을 게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길까요?

그게 아니라 이거에요.

왜~ 삼일 동안 먹을 게 없었다는 이 말이 그 문자 그대로 삼일 동안 먹을 게 전혀 없었다는 뜻이 아닌가 하면, 제자들이 오병이어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무리 빨라도 10시 정도라고 칩시다.

그래서 해 저물 무렵까지는 대여섯 시 이후부터 해가 저문다고 치면, 불과 대여섯 시간, 여섯 일곱 시간 지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먹을 게 없다고 먼저 걱정을 하고 입에다 내 놓습니다.

입으로 꺼냅니다,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삼일 동안 먹을 게 없는데도 제자들이 먹을 것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교훈을 누룩으로 비유하시면서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는데 이때도 떡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떡을 안 가지고 왔다'이런 사람들이 삼일 동안을 지나면서 오병이어 때는 한나절 지나는 동안에 벌써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말을 끊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아! 예수님 잠깐만 스톱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먹게 합시다' 이렇게 했던 자들이 삼일 동안이나 먹을 게 없이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데 말을 안 했을 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대여섯 시간만 지나도 먹을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심성인 제자들이 먹을 것을 얘기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먹을 것이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 이겁니다, 오병이어와 비교해 볼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서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왜 걱정을 앞서서 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걱정을 앞서서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들이 집으로 갈 때에, 도중에 너무 허기가 져 가지고 기진할까 걱정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오버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자체가 오병이어 때와 비교해 보면은 그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 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쉴 틈이 없으니까 '좀 쉬고 먹으라' 이런 걱정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걱정이 항상 앞서간다는 겁니다.

먹는 거 없으면 꼼짝 못하는 심성을 아직까지는 지니고 있는 이 제자들이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꺼내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꺼낸다는 사실을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삶에 대해 죽어서 삶을 마음이 떠나서, 지금 현재 내 마음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그 천국으로 만족하려 할 때에 걱정이 생기죠, 항상.
어떤 걱정이 생기냐 하면 '이 삶은 도대체 누가 걱정하며 어떤 생각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볼 때, 이대로 가다가는 내일이 걱정이 되고 일 년 뒤에 어떻게 살 것인가 길이 보이지 않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천국으로 만족하면서, 행복해 하면서, 삶에 대해서 생각이 전혀 없어져 버릴 때, 삶에 대해서 생각이 죽어버릴 때, 오버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버한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인생에서 앞서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이렇게 땅 위를 걸으면서 내일이 안 보입니다.
그것은 내 눈의 길이 끊어져 보이지마는 하나님께는 헬리콥터 타고 내려다보는 길처럼, 굽어져 있을 뿐이지 길이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헬리콥터 타고 보면 모~든 길이 다 이어져 있습니다.
어떤 길도 끊어져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이 땅을 걷고 있노라 보면 내일이 까마득해요.
도대체 이렇게 직장도 변변치 않은데, 언제 목이 잘릴지 몰라 간당간당 합니다.
내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헬기타고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미리미리 길을 내고,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생리적인 필요인 양식문제를 언급하기 이전에, 삼일 동안 같이 있었을 동안에 그럭

저럭 먹고 있었어요.
비록 광야이지만 이 순간에는, 이 사건 속에서는 안 그러고는 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는 못 견지요.
그럭저럭 버티고 있었고, 먹을 것을 얘깃거리로 삼지 않아도 될 정도인 이 순간에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이 마가의 기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걱정 하느라고, 내 얼굴보다도 내 마음에 더 가까이 와 있는 천국으로 지금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채우고 있지 못하느냐?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합니다, 내 미래를.
내가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마음에 집어넣음으로써, 내 인생에 내 일을 집어넣음으로써 생각이라고 하는 배설물을 배출하고 있는 겁니다.
더러워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더러워질 때,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인생을 내 삶을 생각할 때에, 그 생각이 바로 배설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올 수가 없습니다.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똥밭으로 가득 그냥 차 있는 내 인생의 앞길에 하나님의 생각이 올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한.

그러므로 돈 없다고 내일을 걱정하지 마요.
지금 끊어져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다~ 앞서가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하루가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루가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일도 살아 있을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이 세상 일 때문에 내 마음을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쩔쩔매지 말고, 마음 놓고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내 몸보다도 더 가까이 와 있는 천국을 지나치지 말고, 그 천국에 머물러서 하나님으로 채움의 기쁨을 누리고 있으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주변을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움직여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통화권 안에 있음으로 해서, 내가 움직여야 될 행동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게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생리적으로 필요를 느끼는 것보다도 더 앞서서 이미 갖고 계십니다.
이점이 바로 칠병이어가 오병이어와는 다르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메시지에요.

헬기타고 보는 구절양장의 길이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을 걸으면서 보면 다~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끊어져 있는 지점에 도달하면, 또 하나님의 생각이 미리 있었기 때문에, 길이 열리고 길이 이어져 있을 것이에요.
마음 놓고, 지금 아무리 미급해 보이는 현실이 내게 둘러쳐져 있어도,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마음 놓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내 마음을 뺏어가려는 이 세상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왜? 헬기타고 내려다보는 길은 끊어져 있지를 않으니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볼 때는 끊어져 있는 마디마디라도 헬기타고 보면 안 끊어져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으로 천국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먹는 것을 지독히도 밝히고 염려하는 제자들이 아직까지 먹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주님이 앞서가시며 걱정을 하시고 먹을 것을 준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 놓고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의 현장에서 마음이 떠나 천국에 머물며 천국으로 채워지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앞선 생각으로 펼쳐지는 길들을 눈앞에 끊어진다고 걱정하지 말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